

# 학교 교육과 교회교육의 차이점

Differences between Schooling and Church Education

박진경

## 1. 현 학교교육의 특징

학교교육과 교회교육을 비교하기에 앞서 현 학교교육의 특징을 살펴보자. 학교는 사회 속에서 전통의 계승과 미래의 창조라는 과업을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학교는 그 사회의 가치와 목적 등 여러가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현대 사회를 가리켜 흔히 산업사회 혹은 과학기술사회라고 하는데 현대 사회의 이러한 특징은 학교의 존재방식 및 성격,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에는 교양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의 학교가 산업혁명 이후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인 혹은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학교가 졸업 후에 어떤 직위 또는 직장을 얻기 위해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더 중요시되는 것이 현실이다. 인격의 성장이라는 측면보다는 사회에서 출세하기 위해 거쳐야할 단계라는 측면이 앞서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에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시기인 유년기와 사춘기가 입시준비라는 명목 아래 철저하게 획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오늘날의 학교에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그래서 학교교육은 교사 위주의 지식 전달 수업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교사와 학생 간의, 학생과 학생 상호 간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삶을 배우고 나누며 현재의 경험들 속에서 의미를 찾고 선인들의 지혜를 배우면서 미래의 삶을 위해 준비하도록 가르치기보다는 미리 짜여진 교육과정에 의해 채워진 지식의 보따리들을 학생들의 머리 속에 집어넣는 형태의 교육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 학생들은 존중되어지는 개개의 인격으로서 보다는 집단 내에서 하나의 번호를 가진 피학습 개체로서 취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일찍부터 이러한 학교교육의 문제점들이 루소와 같은 교육사상가에 의해 지적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인본주의(인간주의) 교육학자에 속하는 일련의 학자들에 의해 거론되어 왔다. 특히 중남미에서 주로 활동했던 오스트리아 출신 교육학자 일리히(Ivan Illich)의 <탈학교화 사회(Deschooling Society)>는 현대 사회에서 학교교육의 문제점 뿐 아니라 학교제도 자체에 의문을 던진 글이라 할 수 있

다. 비슷한 시기에 브라질의 교육실천가 프레이리(Paulo Freire)는 <피압박자의 교육(Pedagogy of the Oppressed)>이라는 책을 써서 오늘날 학교교육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전교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참교육운동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레이리는 교육이 '인간화'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학교교육은 오히려 비인간화를 향해 치닫고 있다고 말하면서 오늘날의 학교교육을 '은행저금식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즉 학생은 예탁소가 되고 교사는 예탁자가 되는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고작해야 예금을 받아들이고 보관하는 일을 하는 극히 수동적인 역할 밖에 할 수 없다. 결국 학생들은 '텅 빈 정신'의 소유자일 뿐 인간의 내적 잠재력이나 창의력 등이 결여된 객체로서 취급될 뿐이다. <1>

이와 같은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개인차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모든 학생들은 같은 내용을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배우고 있으며 개개인의 능력차, 소질의 다양함 및 특수한 삶의 질이나 방향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다. 우리 집 첫째 아이의 경우 학교에서 '즐거운 생활(음악, 미술, 체육의 통합 교과)' 시간에 사용하는 공작준비로 거의 대부분 문구점에서 파는 교재를 사가지고 간다. 창의력 발달을 가장 쉽게 도와줄 수 있는 미술 과목의 재료를 학습교재 혹은 교구라는 명목으로 반제작된 제품을 가지고 단지 조립하는 일만을 학생들에게 맡겨

두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에게는 색깔이나 모양을 선택할 자유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교사로부터 받게될 꾸지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입시제도로 인해 가뜰이나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에 그 병폐를 더해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입시를 향해 가면 갈수록 교사가 제시해 준 소위 '정답' 외의 사고는 인정되지 않고 학생들은 아예 스스로의 창조적인 사고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이처럼 입시 위주의 교육은 학생들이 창의성과 개성을 발휘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한 개인이 나름대로 의미있는 삶을 창조적으로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교육 본연의 역할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치열한 경쟁의 분위기는 학생들로 하여금 서로가 공존하며 돕는 삶의 태도보다는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만이 성공이라는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게끔 인도하고 있다.

## 2. 교회교육의 현실 - 교회학교의 학교화

다음으로 교회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교회교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교회교육이라 하면 주일학교를 연상하는데 사실상 교회교육을 근원적 개념에서 보면 교회라는 신앙공동체가 수행하는 모든 교육적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교회교육은 기독교신앙을 전제로 하여 실시되는 모든 영역(교회, 가정, 학교, 사회)의 교육적 행위를 가리키는 기독교교육의 한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

## 필자소개



· 박진경자매는 서울대 사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후 4년동안 중등교직에 근무하였으며, 미국 Wheaton Graduate School에서 Educational Ministries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역서로는 <기독교대학의 이념>,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창의력>등이 있다.

사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학교나 사회에서의 기독교교육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 데다가 기독교 가정에서조차 이를 포기하고 교회에 미루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교육은 결국 교회교육에 의해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회교육의 현실은 어떠하며 그것은 과연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앞에서 밝힌듯이 교회교육은 교회라는 신앙공동체가 전체로서 수행해야 할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교육부 소관의 주일학교에 제한된 일로 오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성장이라고 한다면 교회교육은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의 신앙이 성장(성숙)하도록 돕는 일이다. 어느 누구도 신앙의 성장을 중단한 채 현재 상태에서 충분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교회교육의 대상은 성장기 연령에 속한 아동들이나 청소년들만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청년, 장년은 물론 삶을 마무리짓는 노년층을 포함한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엡 4: 13). 다만 여기서는 우리의 초점을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바대로 성장기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소위 교회학교에 모으기로 하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교회학교를 연령별 또는 학년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발달심리적 차원에서 볼 때 각 연령별로 성장 정도에 따른 발달의 특성을 알아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리하다. 그러나 자칫하면 교회교육을 학교교육과 구분하지 못한 채 지식 위주의 단계적인 전달 학습에 머물고 말 우려를 안고 있다. 사실 오늘날 교회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신앙을 지식화하여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일정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치고 마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경 지식이 많거나 교회 제도에 익숙한 정도가 곧 신앙의 성숙 정도로 평가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교회에서는 은근히 학생들의 경쟁심을 부추기기도 한다. 한 예로 교단 또는 노회 산하 교회들의 연합 행사를 들 수 있는데 아동들의 경우 성경 암송, 성경 경시, 독창, 구연 동화 등의 대회를 가진다. 한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시킨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별 문제가 안될 수도 있지만 다만 이에 그친다면 교회교육이 학교

교육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교회교육의 문제점은 이 외에도 주일 오전에 제한된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 교회 행정구조 속에서의 비효율성과 무관심, 부모들의 무관심, 교육 기재 및 자료에 대한 투자 부족, 교사의 자질 부족 등 교육 외적인 요소들이 많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점이 교육 내적인 문제에 있다고 본다. 즉 교회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신앙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이에서 비롯되는 교육의 패턴을 포함한 여러가지 교육방법 상의 문제들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이 오늘날 교회교육이 궁극적 목적성과 방향성을 상실하고 문제성 많은 학교교육을 어설픔게 뒤따라가는 현실을 낳았다고 본다.

### 3. 학교교육과 교회교육의 차이점

그러면 교회교육은 학교교육과 무엇이 다르며 또한 달라야 하는가? 우선 교육의 형태를 크게 구분하면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형식교육은 일정한 제도 하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 속에서 행해지는 의도적인 교육인 반면 비형식교육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 설정되지 않은 채 행해지는 교육을 말한다. 형식교육의 대표적인 예가 학교교육이고 비형식교육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아마 가정교육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신앙교육은 주일학교 예배 시간의 경우는 형식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비형식적인 상황도 함께 존재하는 복합적인 교육이다.

그밖에 교육시키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교육자의 태도, 환경 및 그외 다른 여건들에 의해 학생들이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 이를 '잠재적 커리큘럼'이라 한다. 잠재적 커리큘럼의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는 바른 자세로 조용히 눈감고 해야 한다고 가르쳤으나 기도 중에 교사들이 예배 준비 관계로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의논을 하는 경우 학생들은 기도하는 자세에 관해서 가르침을 받은 말보다는 교사들의 행동을 통해 본 바를 더 인상깊게 배우는 것이다. 즉, '아! 기도 시간에도 급할 때는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해도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전자는 형식교육에 속하는 것이고 후자는 잠재적 커리큘럼이 되는 것이다. 다른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마치 양식을 먹는 것과 같아서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실제로 그들이 가정에서 생활할 때 그들의 믿는 부모들이 성경 읽는 모습을 좀처럼 보기 어렵다면 그들은 가르침과 삶의 괴리를 보게 되고 실제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그들이 보는 바 삶의 가르침인 것이다.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덕목들에 대하여 아무리 많은 성경을 암송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삶 속에서 부딪치고 목격하는 것들은 부동산 투기나 비싼 옷들에 관한 것 또는 실없는 농담 등이라면 그들은 가치의 혼돈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보다 안일한 길을 배우게 될 것이다.

오늘날 학교교육은 주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과 인지의 발달에 치중하는 형식교육인데 사실 이 형식교육은 개인의 삶의 태도나 인격의 형성에는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욱 형성력이 있는 것은 삶으로부터 생기는 영향이기 때문에 교육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비형식교육 또는 잠재적 커리큘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교회교육에서 부모들과의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적지 않은 유아교육기관에서 학부모 교육강좌 시간을 마련하여 유아교육에서 중요한 점들에 대하여 교육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교육은 유아기의 아동들에게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사춘기를 거치기까지 계속된다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 교회교육은 그 내용이 삶 속에서의 신앙교육이기 때문에 자녀들과 삶의 현장을 가장 많이 공유하는 부모들을 위한 교육이 사실상 필수적인 것임을 알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교회학교 학생들 자신만을 위한 교육만큼이나 중요하다.

학교교육과 교회교육의 차이점을 단적으로 말한다면 전자는 무엇보다도 지식 교육인 반면 후자는 신앙교육이라는 것이다. 물론 학교 교육도 표면적으로는 인격의 완성 또는 전 인격의 발달 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적 상황의 요구나 교육의 실제 형식, 교과 과정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적교육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식 교육에 주안점을 두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보다도 학문의 본질적인 기능이 이성을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목표가 전인적 인격의 도야라고 할 때 이 지식이 인격 속에서 인격의 다른 면들과 조화롭게 발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육실천가들의 노력이 중요하다.

교회의 신앙교육에도 지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신앙의 지적인 측면은 학교교육에서의 지식과는 달리 그 자체 만으로는 도무지 아무 곳에도 유용하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이 지식 위주가 될 경우 우려되는 것은 그 지식이 삶과 유리되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삶과 연결되지 않는 지식(앎)은 죽은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모든 교육은 어떤 종류/형태이든지 간에 '앎'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회의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그것이 성경 속의 앎과 일치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앎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성경에서의 앎은 지적인 면, 즉 머리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면 또는 관계성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 가지는 단순한 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에게 순종하는 응답적 행위까지도 수반하는 말이다. 이 앎은 경험을 통해서 확립되고 증진된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은 이 경험적 측면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차이점은 교육의 방법이다. 학교교육의 주된 방법은 교수(instruction), 즉 교사 중심의 전달식 교육 방법인 반면 교회교육은 신앙교육이므로 경험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소위 "사회화"라는 형태의 교육방법이 가장 중요한 기제가 된다. 그러나 실제 교회교육에서는 이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학교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수에만 주로 의존하는 교육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더욱 가중된다. 사회화란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적 환경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 함으로써 그들의 현재의 자기의식에 이르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자기의식이란 어떤 개인이 그의 자아상, 세계관, 가치체계에 대하여 지니는 연속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인식이다. <2>

사회화는 일차적으로 어린이들이 그들 가까이 있는 성인들의 암시적인 또는 명시적인 기대들, 가치 체계들,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 형성과정으로서 인생의 초기부터 나타난다. 인생의 초기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사회화에 의해 형성된 인격은 그 이후 삶의 과정에서 부딪치는 새로운 환경들과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 만일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부모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성경의 가치관에 의해 일차적으로 형성된 인격을 가진 어린이들이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부모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요즘은 특히 대중매체가 발달한데다 일찍부터 유아원이나 선교원, 유치원 등의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맡기는 일이 많아 여러가지 요인들이 다양하게 작용한다. 그럴수록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것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이나 생활습관, 혹은 세계관 등에 성경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새롭게 도전함으로써 기존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확립시키거나 변형시켜 성경의 가치관을 가진 인격으로 형성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다고 했다(딤후 3:16).

그러나 교회교육의 기준, 매체 혹은 자료로서 성경을 사용하는 데는 오늘날 흔히 교회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일방적인 전달만이어서는 안된다. 물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내용을 교사 또는 다른 또래들 및 성인들과 함께 경험하며 성인들의 삶을 통해 모범을 본다면 가장 분명하게 그들의 삶과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교육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교육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강의식의 일방적인 전달교육보다는 삶 속에서 공통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하여 함께 토의하고 성경속에서, 또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그 해결방안들을 모색해보고 다시 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가운데 신앙이 성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수께서도 성경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가졌던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신 적이 드문 반면 실제로 작은 믿음을 실천에 옮겼던 이들을 칭찬하셨던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교육이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 성경에 관한 지식은 신앙을 평가하는 수단이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것의 역할은 우리 발의 등불이며 우리가 나아가는 길의 빛이라(시 119:105)는 데에 있다. 성경을 잘 암송하지 못하는 학생도, 어떤 귀절이 어디에 적혀있는지 모르는 학생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게 해서는 안된다. 어떤 사람은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도 있다. 또 어떤 이들은 명량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튼튼한 신체로 유익을 끼칠 수 있다. 각 사람이 가진 선천적 능력의 차이와 정도에 관계 없이 누구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유익을 끼칠 수 있다. 학교와 사회가 경쟁적 분위기를 부추길수록 교회는 이를 배격하고 공동체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우리가 서로 상호관계를 가지는 가운데 우리의 자아가 형성되고 신앙과 인격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한 한사람 한사람이 얼마나 귀중하며 서로가 함께 자라가야 하는 동반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학교교육의 경쟁적 분위기에 지친 영혼들이 안식할 수 있으며 실패와 좌절로 상처받으며 자라나는 영혼들이 위로받을 수 있고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영혼을 용납해주는 교육이 교회에서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참고 1. 파울로 프레이리, 피압박자의 교육, 성찬성 옮김, 광주, 1986, pp. 58-62
- 참고 2. Thomas. H. Groome, 기독교적 종교교육, 이기문 역, 예장총회교육부, 1983, p. 168